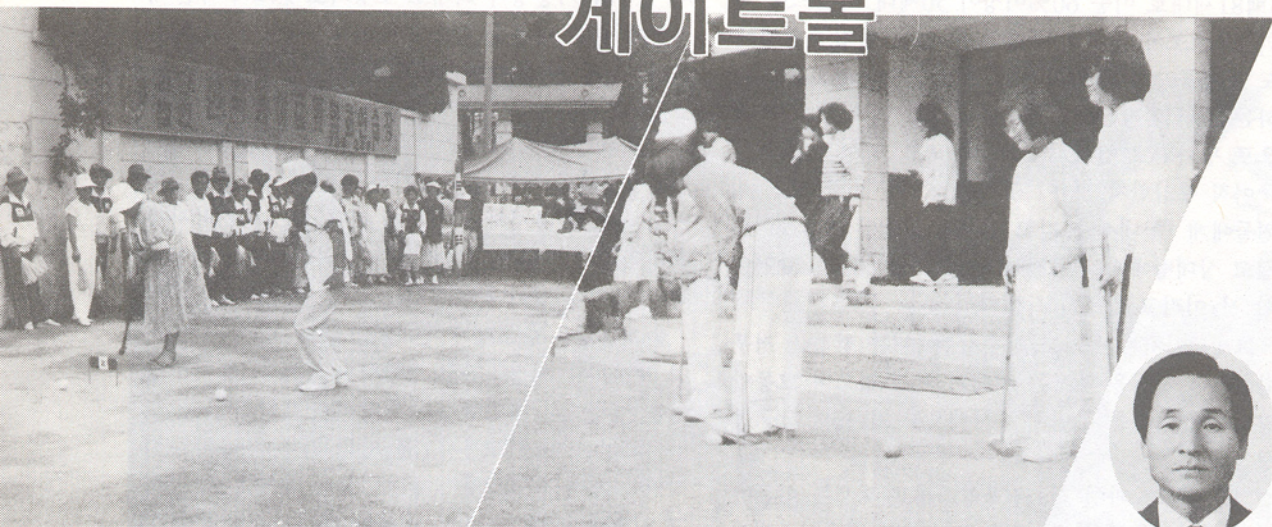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수 있는 게이트볼



서성근

(게이트볼협회 지도부장)

1. 게이트볼이란?

우리나라에도 몇년 전부터 골프와 당구가 혼합된 경기라 불리는 게이트볼이란 레저스포츠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용어 그대로를 해석하면 장방향의 코트 안에서 지정된 위치에 게이트(문) 3개를 세우고 볼(공)을 치게 되는데 이때 T자형으로 생긴 스틱으로 타격해서 게이트를 순차적으로 지정된 방향에서 통과시키고 맨 나중에 중앙에 있는 고울홀에 맞히는 경기로서 정식 경기를 할때는 한팀 5명씩(홍팀5명, 백팀5명)으로 하여 각 팀별 감독 1명과 후보선수 2명까지를 둘수 있다.

그러나 가족끼리 또는 이웃끼리 친선으로 게임을 하고자 할때는 인원수에 구애받지 않고 2명, 4명, 6명으로도 무방하다.

따라서 게이트볼은 남녀노유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특징으로 인하여 노년층과 부녀층, 청소년과 공장등 직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운동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2. 유 래

게이트볼은 구라과 여러나라에서 지금도 성황을 이루고 있는 크로케(croquet)에서 변형된 것이라 볼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2차대전후 일본에서 처음으로 일본인 鈴木和伸이 크로케에서 힌트를 얻어 이를 변형개발하여 그 이름을 게이트볼이라 명명하였다.

처음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번졌으나 수차례의 침체끝에 현재와 같이 대 유행을 이룩하게 되었으며, 지금의 경기인구는 약 5백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같이 일본을 중심으로 한 게이트볼은 동남아 지역은 물론 하와이를 위시한 미국과 캐나다 및 남미의 브라질과 오스트라리아에 까지 유행이 번졌으며 가까이는 홍콩과 대만에도 경기인구가 대단하고 우리나라는 보급이 늦어서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에 있다.

3. 필요성

우리나라는 아직은 가족단위, 이웃단위로 남녀노소가 다같이 함께 참가하여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 레저스포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눈앞에 두고있는 현실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고령화 사회와 이에따른 세대간의 갈등과 대화의 단절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대화를 촉진하고 화합과 국민 모두의 건강이란 차원에서 볼때 게이트볼이야말로 얼마든지 권장하고 싶은 시의에 적절한 레저스포츠라 생각된다.

이 게임을 흔히들 3세대 경기(조부모, 부모, 자녀들이 함께 즐기는 경기)라고 부르는 것도 위와같은 연유에서 이다.

4. 용구 및 경기장

경기에 사용되는 용구는 간단하며 이들 용구는 스틱, 공, 게이트, 고울폴 등으로 되어있고 스틱은 모양이 T자형으로 손잡이의 길이는 71cm와 80cm의 두 종류로 하고 망치의 길이는 24cm, 망치헤드의 직경은 4.5cm로 되어있다.

공은 당구공 크기의 플라스틱재로서 무게 180g ~ 240g으로 하고 직경은 7.5cm로 되어있다. 게이트는 C자형의 철재로서 직경이 1cm, 내폭이 22cm이며 지면에서 20cm의 높이로 세우면 된다. 고울폴은 철재 또는 목재로서 직경이 2cm, 경기장 중앙에 20cm의 높이로 세운다. 경기장 규격은 세로 15m, 가로 20m 또는 세로 20m, 가로 25m의 두가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나 그 넓이가 작으면 그에 비례하여 축소변형해도 무방하다.

제 1 게이트의 위치는 제 1 코너에서 제 2 코너 쪽으로 4m의 지점에서 경기라인안으로 게이트의 중심까지 2m의 거리에 설치한다. 제 2 게이트는 제 2 코너에서 제 3 코너 쪽으로 12m (또는 15m) 지점에서 경기라인안으로 게이트의 중심까지 2m의 거리에 설치한다. 제 3 게이트는 제 1 코너와 제 4 코너의 중간지점에서 경기라인안으로 게이트의 중심까지 2m의 거리에 설치한다. 고울폴은 코트 중앙에 세운다.

스타트라인은 제 1 코너에서 제 4 코너 선상에 세우되 제 1 코너에서 2m되는 지점에서 좌우로 각각 1m 즉 2m의 폭으로 한다.

5. 경기방법

경기에 임하는 팀이 확정되면 가위바위보로 선공격 후공격 여부를 결정하고 먼저 공격하는 팀은 빨간공(1, 3, 5, 7, 9), 뒤에 공격하는 팀은 흰공(2, 4, 6,

8, 10)을 갖게되고 스타트라인의 정렬은 번호순서대로 서야하고 타격순서도 번호순서대로 쳐야된다.

그리하여 제 1 게이트를 통과하면 1점, 제 2 게이트를 통과하면 2점, 제 3 게이트를 통과하면 3점, 고울폴에 맞으면 5점이 되어 그 경기자의 경기는 완료하게 된다.

단 스타트라인에서 제 1 게이트의 통과는 1 회타격으로 통과해야하며 통과하지 못하거나 통과가 되더라도 경기장 밖으로 나가면 실효가 되어 다시 스타트라인에서 자기차례까지 대기해야한다. 경기시간은 게임당 30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합의에따라 임의로 정할수가 있다. 승패는 각팀의 득점총합 점수로 정한다.

6. 회원가입 및 절차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협력회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협력회원이란 직장단위 가입자를 말한다.

1) 정회원(개인)

- 입회비~10,000원(입회시납입)
- 월회비~2,000원

단 18세 미만은 그 반액으로 함.

2) 협력회원(직장단위 가입자)

- 협력회비~80,000원(1년분 회비임)

3) 가입절차

- 본회 소정양식의 회원가입서 1매.
- 사진 2매(증명사진, 단 직장단위 가입자는 제외)
- 소정의 회비첨부 본회에 제출, 단 일단 제출된 서류와 회비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반환하지 않는다.
- 협력회원 가입은 협회소정의 협력회원 가입서 1매를 제출하거나 또는 가입희망을 전화로 연락해 주면 즉시 본회에서 가입서용지와 경기용구 1세트(10인용)를 가지고 해당사를 방문, 경기지도 후 무료제공함.

4) 혜택

- 본회 상설경기장 무료사용
- 협회소정의 절차를 밟아 지역대회, 전국대회 및 국내외의 국제대회 참가.
- 협회가 규정한 각급 심판원시험 응시.
- 회원증 및 회원백지 무료제공.
단 협력회원은 협력회원증으로 한다.
- 본회 간행물(격월간지) 무료배부.

